

경 위 서 이 (?)

2009. 11월 중순 정 지인의 소개로 삼성동 소재 메샘 사무실 10층에서 지인들과의 만나는 자리에서 (주)도이치모터스(코스닥상장, 이하 회사) 권오수 대표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오수는 회사의 우회상장 당시 8000~9000원 정도하던 주가가 1800대로 폭락하여 관련된 우호 주주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저에게 충분한 사례를 약속하며 이문제의 해결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권오수와 협의 끝에, 그와 관련된 우호 지분들이 장내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권오수는 제 투자금에 대한 만일에 있을수 있는 손실을, 자신의 보유지분 중 100만주를 (보호예수가 풀리는 2010.1월말부터 1개월마다 40만씩) 저에게 담보로 제공 하여 손실 보존 하기로 약정 하고, 저는 회사의 주식을 장내 매수하여 주가안정 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2009.11월 말경부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던 도중 2010. 1월 약속한 날짜가 도래되어 약정한 담보에 대한 집행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 주가가 상승하여 손실이 전혀없는 시점인데 100만주까지 필요하진 않냐며, 우선 50만주만주고, 혹 하락하여 추가 손실이 우려되면 그때 나머지 50만주를 주겠다"라고 하여줍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로 저에게 수익을 얻을수 있도록 15억이 예치된 자신의 지인의 신한증권 계좌를 건내주며 저로 하여금 주식 매수를 위탁하고, 수익을 분배 하라며 지인을 소개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가격이 상승하여 실제 손실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고 또 생각대로 매도 물량도 많지 않아 의도하는 대로 진행하기가 수월할꺼라 생각하여 그럼 우선 50주를 몇일뒤 까지 달라고 하고 권오수의 말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뒤 50만주 마저 지급되지 않았지만 손실이 없는 상태이고, 신뢰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으며, 진분이 형성되서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월 말경 주가가 상승하자 시작시점과 달리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자금이 부족하고,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다시 한번 약정한 담보 와 사례부분에 대하여 묻자, "자신은 말이 법이다. 도망 안가니 믿고 해달라"고 하여 제가 그럼 이제 5~10억 가지고는 안된다. 나도 사채를 써서라도 올인 할테니, 당신도 현실적으로 동참을 해라라고 하였고, 권오수는 자신의 오래된 지인인 또 다른 주주 양 을 데리고와 양 에게 "자신이 이대표에게 부탁하여

자신회사의 주식을 만지고 있으니 문제가 없고.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질테니 가지고 있는 주식계좌를 맡기고 자신이 하자는대로 하자며 얘기를 나눈뒤 양 을 저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양 는 3~4일뒤 82만주가 입고 되어있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권오수의 말에따라 남은 나의 자금 과 양 의 계좌로 주식을 매입하며 주가 관리를 하다보니 양 의 주식이 10만주 가량 줄어 들게되고, 제가 가진 자금도 전부 소요되어 주가가 하락 하였습니다.

동년 3월 말경 제가 입원한 일산 백병원으로 권오수가 찾아와 “주가를 이렇게 나두면 어떡하나?” 하여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5~10억 으로 될 상황도 아니고, 나역시 준비한 자금이 전부 소진된 상황이며, 물량도 쏟아지고, 손실보존 담보물도 많고, 권 대표가 얘기했던 상황과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항의 하자 권오수는 “걱정말고 자신을 믿고 마무리 하라”며 제차 일전에 했던 말들을 되풀이 하였고, 저는 당시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권오수의 말을 믿고 따라갈수 뿐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권오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라고 물어 담보를 제공하고 사채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답하니 권오수는 “그러면 양 주식을 담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에게 빌려 사채를 쓰라”고 하여 저는 제지인 정 에게 현금10억을 차용하여 양 의 주식62만주를 명동사채에 맡기고 그들에게 20억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교부받아 다시 주식 매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동년4월 말경 계속된 저의 매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권오수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어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했던 우호지분 AK펀드 소유의 주식 약 150주가 몇일에 걸쳐 매물로 쏟아져 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제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매수하였던 계좌의 자금들이 모두 소진되고, 큰 손실이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채 이자만 들어가며 점점 궁궁하던 중 동년 8월경 제 후배의 소개로 토러스 증권 이사인 김 을 만나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입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니, “도와주면 자신에게 무엇을 해 줄꺼냐?”하여 저는 권오수가 저에게 약속했던 사례금에서 20만주를 주려고 김 에게 20만주를 무상으로 사례하겠다 라고 말하여 김 이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40억원을 매수 하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몇일후 제가 지병으로 쓰러져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김 을 소개했던 후배가 찾아와 김 이 이제까지 약간의 수량을 매수하였다고 하고 이제야 자금이 준비 가능하니, 약속했던 사례금 20만주를 주면 준비된

40억의 자금으로 본격적인 매수를 하겠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김 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김 은 자신이 10~20만주를 먼저 매수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례금으로 몇천만원 이라도 달라고 하여, 이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당시 가지고 있던 일천만원을 김 에게 전해주라고 후배에게 주어 후배가 이튿날 아침 김 에게 송금 하였습니다.

동년 8월 중순경 제가 지인들과 사채업자에게 손실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권오수를 만나 손실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를 논의 하던 중 권오수가 “내가 언제 너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하였나?”며 화를 내고 돌변 하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후 9월초 김 에게 약속한 나머지 일천만원을 후배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이 무렵 권오수는저의 전화를 회피 하며 김 과 둘이 따로 만나기 시작하였고, 김 은 저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매수자금 40억에 대하여 자금을 마련해 놓았으니 약속한 20만주의 주식중 절반인 10만주는 주어야 한다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2011.1월 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천만원을 김 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많은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했으며, 매수하였던 주식은 추가적인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를 당하여 소위 깡통계좌가 되었으며, 지인들의 계좌 역시 엄청난 손실을 입어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김 은 권오수와 결탁하여 저의 약점을 가지고 약속한 사례금 10만주(당시 이억오천만원 상당)에서 6천만원을 받아간 시점부터 나머지 1억9천만원에 대하여 지급을 안한다며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 하였으며, 심지어 저의집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조직폭력배들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받아간 후부터 채권자 행세를 하며, 문자와 전화등으로 갖은 욕설과 협박,회유등을 하며 저를 괴롭혔고, 당시 재판 계류중이던 저에게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에 불이익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해달라고 하여 제 기억에 의하면 2011.1월 말경 일억구천만원에 대하여 공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공증된 채권을 깡패인 정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넘겼다며 같이 찾아와서 물어버린다 등등의 협박을 하며 채권을 양도받은 정사장에게 다시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 하여 저는 따르지 않을시 죽을것같은 두려움을 느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